

# 도의회, 국외연수비 전액 반납

### 코로나19 대응·지역경제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토록 전북도에 요청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7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북도에 요청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

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회에서 반납하기로 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1억2400만 원, 상임위 직원 의원 국외연수 지원 6천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전국 시도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의회 교류지원 1000만 원 등 모두 3억7천400만 원이다. 이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

화로 도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도의회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을 반납,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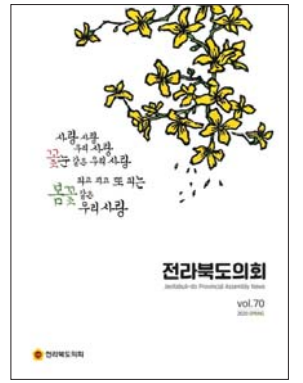
이어 "도민들께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

든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촉구를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소식지 대폭 개편

### '전라북도의회' 제70호 발간 5분발언 동영상 연계 지역구 의원 인터뷰 신설



전북도의회 소식지인 '전라북도의회 2020봄호(제70호)'가 도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동영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 개편된 모습으로 발간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황영석)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북의 다양한 소식을 수록하고 있다.

2020년 봄호부터 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가 새롭게 선보였으며, 코로나19사태로 분의회 방청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소식지에 QR 코드를 삽입 5분 자유발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코너도 신설됐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의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지원내용, 행동수칙 등도 안내됐다.

지난 2월(제369회)과 3월(제370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2020년도 업무보고와

코로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됐으며, 산후건강관리 지원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내용 등도 게재됐다.

황영석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전라북도의회 소식지는 도민들과 도의회를 잇는 가교"라며, "도민들이 도의회 활동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회 역할과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지는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onbuk.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으며, 구독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준다. /김진성 기자



국민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해근, 우희종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에게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정읍 출신·연고 타지역 국회의원 7명 당선

출신-임오경·배진교  
시택-고민정·전혜숙·심상정  
처가-김한정·김수홍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읍에서 태어났거나 연고지가 있는 타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이 시택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은 광진을에서 전 서울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2,746표 차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정읍 며느리로 전북도 행사에 적극 참여한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고양갑에서 5만6,516표를 얻으며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우생순'의 핸드볼 스타인 정읍 출신의 민주당 임오경 당선자는 광명갑에서 통합당 양주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정읍이 시택인 민주당 전혜숙 당선자는 광진구 갑에서 통합당이 세대교체를 앞세워 전라공천한 김병민 후보를 이기며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

또, 정읍이 처가인 민주당 김한정 당선자는 남양주을에서 통합당 김용식 후보를, 민주당 김수홍 당선자는 익산갑에서 민생당 고상진 후보를 누르고 각각 승리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 태인면이 고향인 전 인천 남동구청장 배진교 당선자도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으로 국회 의석을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 도구 될 것"

### 민주 윤준병 당선인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해제 등 12년 이상 묵은 현안 해결" 약속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이 고창군 선거사무소와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잇달아 찾아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 첫머리에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정읍시민, 고창군민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고향을 위해 일 할

기회를 주신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또 공약한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해제와 부창대교 건설, 한빛원전 안전성 강화 등 12년 이상 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과 어업을 뚝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라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고부와 무장, 태인을 연결하는 동학벨트 사업, 복지시스템 강화와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을 약속사항으로 강조했다.

한편 지역 정치에서의 당정협의 강화와 함께 민주당의 역할을 높여나가겠다고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검찰개혁 끝까지 추진"

### 민주 김용민·김남국 당선인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당선인은 21대 국회 과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김용민 당선인(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선거는 검찰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행히 유권자들께서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하고 싶은 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그 전(前) 단계로 검찰의 권한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검사가 잘못했을 때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며

"사실 법무부가 감찰하는 게 맞다. 법무부에 직접 감찰권이 여전히 있다. 검찰 내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다뤄야 생겼을 때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국백서' 저자로 참여했던 김남국 당선인도 "조국백서라는 건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개혁 백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힘을 실어서 끝까지 추진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조국백서라는 게 개인에 대한 위인전,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냥 상식적인 불응,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권력도 심판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권은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